

부활 제3주일

기도서 287면 (다해)

제1 독서 : 사도 5, 27b-32, 40b-41

제2 독서 : 묵시 5, 11-14

복 음 : 요한 21, 1-19

숨 정 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 주시고 또 생선도 집어 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요한 21, 13-14).

강론

소리

가야할 곳이 있다

나를 사랑하느냐?

김종길 신부 / 해성학원이사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요한13,376). 이렇게 장담했을 때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요한13,38) 하셨다. 그후 예수께서 잡히시어 안나스의 심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예언대로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 하였다(요한18,17b, 25b, 27).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21,15-17) 하고 거듭 세 번이나 물었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번 다 고백한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분부 하셨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각자에게 묻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데레사야, 바오로야, 라파엘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고백해야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21,25), 혹은 이 세상 부귀 영화와 권세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장담하였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때 재물이나 부귀 영화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바치겠다는 것이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번이나 대답했을 때 마다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특별히 베드로에게 간절히 당부하신 말씀이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었다. 그리고 결국 양들을 돌보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이다.

다음 주일은 성소 주일이다. 예수께서는 착한 목자이시고 그 목자직을 베드로에게 넘겨 주시며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라고 당부하셨다. 베드로 역시 착한 목자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요한21,19). 오늘도 예수께서는 목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제 이, 제 삼의 베드로를…….

부활절 아침 온 국민이 깜짝 놀랐다.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독재세력과 맞서 투쟁하다 4차례나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었던 현 전민련 고문 文益煥목사와 그 일행의 평양 방문.

놀라움도 잠시, 연일 “귀국즉시 구속” “월북행위” “통일을 저해하는 반국가적 작태” 등을 외쳐대는 정부의 서슬 퍼런 소리에 귀가 멀 지경이다.

분단조국의 통일된 앞날을 그리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채 북한을 방문한 한 국민이 결국 죄인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아픈 조국의 현실.

북한과의 대화창구 일원화만을 주장했던 정부는 과연 그 창구를 온 국민에게 개방하여 통일을 위해 노력했는가.

학생과 문인들의 북한과의 대화시도를 번번이 경찰출동원 봉쇄하고 오로지 한사람 재벌기업의 총수(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치는 현대중공업 근로자와는 대화를 거부하고 정부가 말하는 민족의 원흉 김일성과는 만나는)정주영씨에게는 북한방문을 허가했던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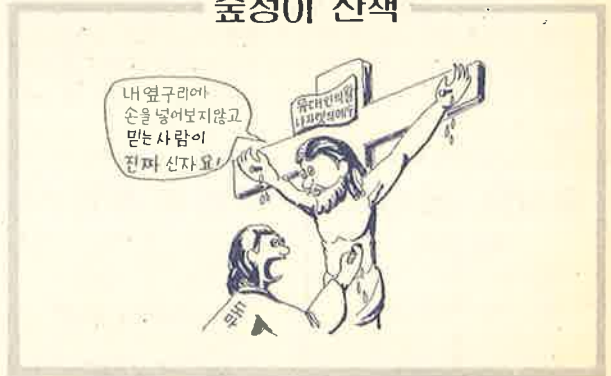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말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

또 막강한 권한과 능력(?)을 지닌 안기부에서 정말 文목사일행의 북한방문을 몰랐었던 말인가. 고개가 기울어지는 일이다.

무슨일이 터지기만 하면 자기의 잘못과 책임을 뒤우치지 못하고 나라일을 갈피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벼락감투 뒤집어 쓴 높으신 분들이 가야할 곳이 있다.

강원도 깊은 산 속에서 평생동지 계모임이나 할 일이다.

숨정이 산책



아래 청원서는 전임 교구장 박정일 주교님의 명의로 교황성하게 교구 순교자 5위 시복시성을 청원한 문서 전문입니다.

시복시성 청원서

지극히 공경하올 교황성하.

본인, 전주교구의 제6대 교구장 주교 박 미카엘(정일)은 본 교구의 관할 지역내의 출신으로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가장 이른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자 5명을 시복, 시성해 주시기를 청하여 할 수 있는한 빠른 시일 안에 교황 성하의 율허 있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시복, 시성의 청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윤지충(바오로) 1759-1791 호교자
- 권상현(야고보) 1751-1791 호교자
- 유항겸(아우구스티노) 1754-1801 호남의 첫 신자
- 유중철(요 한) 1779-1802 부부 동정
- 이순이(루갈다) 1782-1802 부부 동정

이 다섯분의 순교자들은 지난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시성의 영광을 누렸던 103위 성인들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분들로서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1784년) 직후의 순교자들이며 한국 천주교회의 순교역사에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전국적 차원에서 순교자들의 시복과 시성을 추진할 때 역사적으로 수차례 반복되었던 박해 중에서 파리 외방선교사들이 입국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일어났던 기해(1839), 병오(1846), 병인(1866)의 대 박해를 중심으로 103위 후보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 이전인 전주교구를 비롯한 한국 교회의 초기의 순교자들은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저의 전주교구는 지난해(1987) 자치 교우 설정 5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를 반성하고 앞날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교구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여러 가지 제안이 신중하게 논의되던 이때가 바로 본교구 출신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의 열망에 박차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주 교구의 내적 및 외적 성장에 기여한 많은 요인중에 큰 몫을 차지했던 내용은 순교 선열들, 특히 이 고장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전파해 왔던 성직자 수도자를 포함한 많은 신자들의 힘이라고 평가되면서, 전주교구 초기의 순교자들의 시복, 시성이 강력히 요청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교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본주교는 교구내 신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그 신심행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복, 시성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성 후보자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한 결과 동정부부 순교자인 유요한과 이 루갈다, 이들의 동정생활을 보호한 아버지이며 이 지역의 첫번째 신자인 유아우구스티노,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의 최초의 호교론자이며 순교자들인 윤바오로와 권야고보만을 시성의 후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서에 첨부된 후보자 5명의 약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다섯 분의 순교 사실과 신앙으로 다져진 영웅적 생애는 교회안의 자료뿐 아니라 교회 밖의 자료, 특히 그들이 순교할 당시 재판 기록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신앙과 성덕에 있어서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으므로 공경의 대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외교인에게도 참다운 인생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주교와 뜻을 같이하는 교구내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는 시복 시성의 후보자로 선정된 다섯 분의 순교자들이 이미 천상에서 하느님과 함께 끝없는 영광을 누리고 계심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있으며, 그분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과 그분들이 피흘려 가꾸어 놓은 지역 교회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전구는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힘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조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지역 교회의 초석이 된 이분들을 공식적으로 선언된 성인으로 장엄하게 공경하기를 희망하며 그분들의 실천적 신앙을 오늘의 사회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구원의 성사인 교회」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또 이분들이 시성되어 온 세계에 공경의 대상으로 선포되면 세상의 성화를 위한 「반대 받는 표적」의 가치가 역력히 드러날 것을 확신합니다.

시복, 시성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의 지시와 협조에 성실히 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외람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976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제41차 세계 성체대회를 전후하여 미국의 시튼수녀와 뉴만주교의 시복, 시성식은 미국 교회 성장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아름다운 조화를 부러워하는 우리는, 저희 교구에서 추천한 후보5명 중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동정부부의 동정 생활 결심이 성체 성사와 관련된 위대한 결정이기에, 하느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는 교황 성하께서 1985년 10월로 예정된 한국의 성체대회를 기해 이 후보자들에게 시성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끝으로 영원한 동정부부이신 성 요셉과 성 마리아께서도 자신들을 본받아 동정을 지키며 살던 유요한과 이 루갈다를 포함한 다섯분의 순교자들의 시성을 위하여 전구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으며, 자녀다운 효성으로 성하의 사도적 축복을 청합니다.

1988. 9. 20

전주교 전주교구장
주교 박 정 일 (미카엘)

성심칼라현상소

25분 완성
최신기계설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표 박 주산 (요한)
시정열 (전북은행노동동지점 앞)
☎ 86-9008

성심목공업사

성구·제대·강릉대·제구장
간이차·탁상·화분대
틀레용기구 맞춤전문
서 스테파노 (옥봉)
한 안 나 (은순)
☎ 77-1747

황수경산부인과

여 의 사 황 수경 (크리스티나)
산부인과전문의 이 승렬 (엘 리 아)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잡 관!

‘교구 예비자 교리반’을 모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28.19-20).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떠나시며 행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명령수행을 위해 존재한다. 이 명령을 보다 효과적이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최대한 이용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그리고 각 본당마다 나름대로 이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그중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예비자 교리반” 운용이다. ‘예비자 교리’- 이는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의 최고 중점 사업이어야 한다. 그 무엇 때문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조건이 좋으면 좋은대로 나쁘면 나쁜대로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근본 사명에 따라, 가톨릭 센타 내에 “교구 예비자 교리반”을 개설하여 13차에 걸쳐 400여 명의 영세자를 배출하였다. 이번 4월20일부터 새롭게 가톨릭 신앙을 준비하고자 하는 예비자를 모집하고 있다. 여러 개인사정으로 본당 교리반 참석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문의처: 교구청 교육국 전화85-0041~3)

교 구 소 식

1. 사목방문: 11일-(화) 남원(오전10시30분) 순창(오후2시) 13일-부안(오전10시 30분) 요촌(오후2시)
2. 본당 사목회장, 부회장, 교구단위 단체장, 평협임원 연수회: 4월 16일(일) 오전9시 30분~오후6시 장소-가톨릭센타 3층회의실 참가비-1인당 3,000원
3. 성소주일행사

일 시: 1989년 4월16일(일) 오전10시	장소-해성중·고등학교
대 상: 교구내 모든 중·고, 대학생 및 일반(남·여)	
준비물: 미사도구, 필기도구, 중식, 미술도구	
내 용: 신학교 및 수도회 소개, 각 수도회 전시장 개장, 백일장 및 사생대회	
4. 예비자교리반 모집: 개강-4월20일경 접수-교육국(85-0041) 교리일시-매주 목요일 저녁7시30분
5. 사랑의 씨튼수녀회 성소피정: 4월23일(매월네째주) 9시30분-5시 장소-광주시 북구 본촌동 사랑의 씨튼 수녀원(062-525-2004) 준비물-미사, 필기도구(회비 2,000원)
6. 살레시오 수녀회 성소모임: 4월9일 오늘 오후1시30분 광주 지산동 480번지 수녀원 본원27-1017
7. 교구사제출국소식: 3월7일 양경배신부(이태리 로마) 28일 서정현신부(아르헨티나) 31일 김순태신부(미국)
8. 원고모집: 매달 마지막주 숲정이에 실릴 신자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마감-매달10일 평신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원고5매 내외 인물소개, 체험수기-원고6매 내외
9. 남전주지구 청년단체 연합회 발족: 회장-박장춘, 부회장-권영호, 총무-최치환
10. 분실물 주인을 찾습니다: 1월 20일 전주중앙성당 사제 서품식 미사때 주은 남자용 손목시계 •연락처: 85-8748 김종택 신부
11. 울뜨레아 간사회의: 4월 16일(일) 오후3시 가톨릭센타

요심이(918) 



서신동 천주교회 성전건립을 위한 비자회·경품권

비자회: 1989년 4월 6-9일까지 (오전10시~오후9시)
경품권추첨: 1989년 4월 9일(일) 오후 5시
장소: 전주 중앙성당

한복 약혼·무용·파티·결혼 **고려주단**

전 광원 (미르코)
김 삼례 (소피아)
전주시 교사동(신혼예식장 골목) ☎ 6-1902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범석(꽃베)
일요일 오전은 휴진
전주시 덕진동1가 1262-16 전북대 앞 덕진성당 옆
☎ 72-2685, 75-3533

특수조명·누전 책임수리·장식 무늬별 각종 조명기구, 가정용 전화기구 전기 공사 차고, 제작 도산배 **광신(조명)전업사**
박 상기 (안드레이)
장 영자 (세시리아)
(전주백화점 건너편) ☎ 84-4753, 84-4566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3가 7-1 ☎ 3-2496·2-8653

내과 전문의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위 상양 (프란치스코)·김 병희 (글리라)
☎ 병원 4-1225, 자택 75-0034
전주시 교사동2가 1-13 원주농협·우신호텔 앞

성체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생명의 빵' 입니다.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 인 석
수녀원 82-9662

1. 성령쇄신세미나: 13일 7시30분 한번쯤은 참여해 봅시다.
 2. 새신자 가정방문: 11일 3시 중노2가11, 12반-신부님 중노2가 11, 12반-수녀님 12일10시-중노2가13, 14반 인후1, 2반 12일3시 인후3, 4반 중노2가15, 16반 13일10시 인후5, 6반 중노2가17반 14일10시 인후7, 8반 남노1, 2반
 3. 회의 꾸리아: 오늘2시 부녀회 상임위원회-11일 어머니미사후, ME 국화튀모임, 사목회-14일 7시30분
 4. 여성28차 꾸르실료: 13-16일 김정자, 구정미, 노무순
 5. 성소주일행사: 16일 9시30분 중·고생 청년은 해상학교 강당으로
 6. 회장단연수회: 16일 10시 가톨릭센터
 7. 축! 결혼: 16일 12시(신랑-유경민 신부-김정남) 1시(신랑-박상규 신부-이금옥)
- ☐지난주봉헌금: 667,020원 ☐교무금: 486,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 일 균
수녀원 86-3454

1. 울뜨레아: 오늘 공식미사후 2. 꾸리아: 오늘 오후2시
 3. 빈첸시오회: 오늘 꾸리아후 4.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후
 5. 아치에스행사: 12일 오전10:30 미사후
 6. 요셉회: 12일 오후7시 7. 자모회: 13일 오전10시
 8. 안나회: 13일 오전10시 9. 반회장회: 15일 오전10시
 10. 성우회: 16일 공식미사후 11. 성소주일: 16일 2차현금
 12. 사순절저금통: 135개 977,820원
- 금주전례: 해설-최육남 독서①최창기 ②이강림
봉헌-최창기씨 부부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정동민 ②김하형
봉헌-정동민씨 부부
- ☐지난주봉헌금: 527,900원 ☐교무금: 799,7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 순 천

1. 구역형제회: 11일-마치, 수월 12일-신홍, 백암, 내정
 2. 구역미사: 13일-서당
 3. 신협이사회: 공식미사후
 4. 서신동 성전건립을 위한 경품권 판매: 1장-천원 사무실에서 판매함
 5. 사순절 저금통: 봉헌해 주세요.
 6. 성소주일: 다음주(2차현금)
 7. 청년회, 성가정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8. 산청나한자촌 방문: 11일, 오전8시 출발, 회비-일만원
 9. 군입대한 자녀를 숲정이 보내기: 주소록 사무실에 접수 하세요.
- ☐지난주봉헌금: 186,600원 ☐교무금: 406,500원

*서화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 석 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 환 용
수녀원 84-2276

1. 회의: ①반장회-오늘공식미사후 ②성심회-4월13일(목) 오후 2시 ③프란치스코3회 월례회-오늘오후2시 ④울뜨레아-4월13일(목) 오후8시
 2. 알림: ①여성28차 꾸르실료수강-김보나(숙임) 4월13일 *신자들의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②미사시간변경-저녁미사시간 오후8시로 변경함 ③치명자산 개발현금 신청하신분 속히 내주 셔요(4월16일 마감) ④성가대 단합대회: 4월12일(수)
- 차주전례: 해설-김배근 독서①유용산 ②김낙환
봉헌-김영곤(요한보스꼬부부)
- ☐지난주봉헌금: 412,600원 ☐교무금: 224,000원

*용머리

사제관 6-2335 주임신부 조 정 오
사무실 87-0441 사목회장 황 희 상

1. 오늘 공식미사후 구역·반장회의: 10시미사후
 2. 나무헌수: 사무실 접수
 3. 참·들기름 구입할실분 성당에 오셔서 구입하세요.
 4. 복사단 모집: 사무실에 접수
 5. 초·중·고 교리교사 모집: 사무실로 연락
- ☐지난주봉헌금: 277,251원 ☐교무금: 128,000원
☐특별헌금: 170,000원 ☐돼지저금통: 62,116원

*전동

사무실 84-3222·수녀원 82-9234 주임신부 이 수 현
유치원 84-8347·레이아 83-5085 보좌신부 김 선 태
사제관 82-6232·82-7245 사목회장 안 득 수

- ※ 성전보수 헌금 바랍니다. ※ 89년 교무금 신입바람
1. 구역봉사자모임: 오늘 저녁7시
 2. J.O.C 비디오상영: 오늘 저녁8시(소강당) 제목-위대한 독재자
 3. 반기도회: 11일~14일·반미사 11일-전동2반 12일-중앙동1반 13일-농남동1반 14일-동원산동1반
 4. 레이오아치에스행사: 15일(토) 오후2시 전단원 참여바람(수취지참)
 5. 글로리아성가대 임원개편: 단장-이준호 부단장-주정숙 총무-박태규 회계-국육숙 6. 가정방문: 12일-전동1반, 동원산동1반 14일-전동2반, 동원산동2반
 7. 사목회: 다음주 저녁8시
- ☐금주보수비헌금액: 922,310원 ☐금주보수비신입액: 5,550,000원
☐현재모금총액: 15,461,610원 ☐현재신입총액: 91,486,00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 병 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 광 환
수녀원 87-0229

1. 신축헌금 신입자: 조성호10만원(해성학교) 익명3만원
 2. 신학생후원회 신입: 한상철2, 장학생신입-한상철2, 하리아1
 3. 영세자 가정방문: 11일(화)전10~후5 4. 성심회: 12일(수) 후2
 5. 형제회: 12일(수)-12, 21, 24, 25, 26, 20반 13일(목)-15, 16, 17, 18반 14일(금)-30, 광곡, 평촌 6.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7. 오늘: 대의원 총회, 제대회-공식미사후
 8. 혼배미사: 16일 12시 신랑-정복수 신부-박신자(막달레나)
 9. ME모임: 11일(화) 후8 *예비자 인도봉헌에 협조를 바랍니다.
 10. 금주전례: 해설-정순태 성인복사-김화영 지동호 봉헌-오수환부부
- 차주전례: 해설-함문권 성인복사-문치구 오연호 봉헌-유중앙부부
- ☐지난주봉헌금: 332,060원 ☐교무금: 310,500원
☐자선헌금: 14,500원 ☐신축금신입총액: 145,664,836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 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 대 현
수녀원 84-4804

1. 가사: 성령세미나(6일동안) 봉사자들, 참석자들
 2. 세 예비자 교리: 일요일 10:30 수-7:30 ※ 예비자들 적극 인도함시다. 3. 유아영세: 오늘 오후5시
 4. 모임안내: ①울뜨레아-오늘 11시미사후 ②구역봉사자 모임 금주 수요일 11시, 교적, 회의복 지참
 5. 신자가정방문: 화~수 오후 1:30~5:30
 6. 사순절 돼지저금통 내 주시기 바랍니다. 700개 배부중 97개(목) 봉헌
 7. 청소년당: 금주-원동연립, 은성주배 다음주-쌍용아파트 1단지동영 ※ 은인을 구합니다: 미사가방-(가정미사용) 10만원 성사 및 성취 7만원 세의3벌(여:유용) 30만원 제대보5만원 기타 3만원
- ☐지난주 봉헌금: 792,230원 ☐교무금: 998,000원
☐주일학생 헌금: 12,690원 ☐중고생 헌금: 30,730원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 창 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 용 무
수녀원 87-0711

1. 울뜨레아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2. 성모회 월례회: 14일(금) 어머니미사후
 3. 독배공소미사: 14일(금) 오후3:00
 4. 의자헌금 신입서 접수
 5. 차주모임: 청년회 사목회
 6. 꾸리아 월례회: 15일(토) 1:30
 7. 의자헌금: 총33,000원 8. 신축헌금: 이기탁50,000원
- 금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최재준 ②김동희
기도-송하영 한명희
차주전례: 해설-조진숙 독서①나귀준 ②박혜숙
기도-권일만 표순례
- ☐지난주봉헌금: 440,440원 ☐교무금: 597,000원